

# 건설동향브리핑

## 제470호 (2014. 7. 21)

### ■ 경제 동향

- 5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1.5% 증가, 회복세 다소 주춤

### ■ 정책 · 경영

- 2020년 건설시장, 유지보수 중심으로 재편
- 건설 전업 기업들의 과제

### ■ 정보 마당

- 영국의 건설산업 전략 2025

###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입찰 담합 근절, 제도적 요인부터 점검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5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1.5% 증가, 회복세 다소 주춤

- 공공 부문 29.0% 증가, 민간 부문 8.0% 감소 -

### ■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수주액 자체는 부진

- 5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이 양호한 반면 민간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에 그친 6조 1,641억원을 기록함.
  -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7.0%가 증가하여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5월에는 1.5%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임.
  - 또한, 5월 실적으로는 최근 12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6조 1,641억원을 기록, 수주액 자체도 부진한 실정임.

### ■ 공공 부문 : 전년 동월비 29.0% 증가, 비주택 건축 매우 양호

- 비주택 건축이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2조 125억원을 기록, 2개월 연속 증가함.
  - 공공 토목수주는 도로 및 교량 수주가 증가하였으나, 철도를 비롯한 다른 부문의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 감소한 7,439억원을 기록함. 결국,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개월 연속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함.
  - 주택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감소한 1,351억원을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46.5% 급등한 1조 1,335억원으로 5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이는 공장 및 창고 등 공공 작업용 건물과 터미널, 문화회관, 체육시설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 물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2014년 5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5월	6,073.1	1,559.6	898.6	660.9	201.0	459.9	4,513.6	1,983.1	2,530.5	1,217.8	1,312.7
2014. 5월	6,164.1	2,012.5	743.9	1,268.6	135.1	1,133.5	4,151.6	566.2	3,585.4	2,358.2	1,227.2
증감률	1.5	29.0	-17.2	91.9	-32.8	146.5	-8.0	-71.4	41.7	93.6	-6.5
2013. 1~5월	24,444.5	7,407.5	5,154.2	2,253.3	611.8	1,641.4	17,037.0	4,282.3	12,754.7	6,729.8	6,025.0
2014. 1~5월	28,934.1	9,872.7	7,190.2	2,682.5	765.6	1,916.9	19,061.4	2,259.3	16,802.2	10,833.8	5,968.4
증감률	18.4	33.3	39.5	19.1	25.1	16.8	11.9	-47.2	31.7	61.0	-0.9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민간 부문 : 토목 및 비주택 건축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월비 8.0% 감소

- 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 5월 실적으로 5년 내 최저치인 4조 1,516억원을 기록함. 결국, 지난 4월에 58.7%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수주는 5월 실적으로는 5년 내 최저치인 5,662억원으로, 전년 동월비 71.4% 감소
  - 주택수주는 재건축수주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작년 5월 수주가 부진한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93.6% 증가한 2조 3,582억원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5% 감소한 1조 2,272억원을 기록함.

■ 건축 : 주택과 사무실 등 양호, 토목 : 철도, 발전소, 기계설치 등 부진

- 건축 수주의 경우, 주택과 사무실 및 점포 수주 등이 양호했음.
  - 주택수주는 민간의 호조로 전년 동월비 75.7% 증가했으며, 사무실 및 점포도 25.6% 증가함. 기타 건축 수주 또한 494.4% 급등한 8,728억원을 기록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반면,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수주는 각각 13.0%, 43.2% 감소해 부진하였음.
- 토목 공종의 경우, 도로 및 교량 수주, 항만 및 공항, 토지조성 등이 좋은 실적을 보였으나, 철도 및 궤도,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등은 부진하였음.
  - 도로 및 교량 수주와 항만 및 공항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8.5%, 191.1% 증가해 양호했으며, 토지조성 수주 또한 25.9% 증가함.
  - 반면, 철도 및 궤도 수주는 68.5% 감소해 부진했으며,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수주도 각각 94.5%, 75.4% 급감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4. 5월	2,493.3	869.8	252.7	365.5	872.8	256.2	8.9	78.4	360.6	38.2	327.9
증감률	75.7	25.6	-13.0	-43.2	494.4	38.5	-68.5	191.1	25.9	-94.5	-75.4
2014.1~5월	11,599.4	3,903.0	1,358.2	1,532.2	1,091.9	3,415.2	1,646.9	304.9	931.8	1,218.4	929.5
증감률	58.0	17.1	-11.5	-30.6	84.5	152.8	30.8	-6.7	18.5	-12.4	-70.4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2020년 건설시장, 유지보수 중심으로 재편<sup>1)</sup>

- 정부 정책 및 건설기업 경영 전략 전환 필요 -

###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지속 하락, 202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1.0~11.5% 전망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정립한 모델식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추가 고려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2020년에는 11%에 근접하고, 2025년과 2030년에는 1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구체적으로 2013년에 13.46%(2005년 불변금액 기준)인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2020년에는 11.0~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이후에는 유지보수 투자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하락 속도가 과거에 비해 소폭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2025년에는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10.0~10.5%, 2030년에는 9.2~9.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단, 2025년과 2030년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전망치는 우리나라의 유지보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조속하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출한 전망치임.

### ■ 건설투자 연평균 성장률, 2013~20년 0.8~1.5%, 2020~30년 0.6~0.7% 전망

- 한편, 건설투자 금액 자체는 2005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2020년에는 162.0조~169.4조원, 2030년에는 172.7조~182.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국내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년 간은 0.8~1.5%, 2020~30년 간은 이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0.6~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11.0~11.5%	10.0~10.5%	9.2~9.7%
건설투자 금액	162.0조~169.4조원	168.5조~177.0조원	172.7조~182.1조원
구분	2013~20년	2020~30년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	0.8~1.5%	0.6~0.7%	

주 : 건설투자 금액은 2005년 불변금액 기준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4년 7월에 발간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 ■ 2020년 이후 유지보수 중심의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

- 국내 건설시장은 2020년 이후 신축 시장은 본격적으로 축소되고, 주택 리모델링, 도심 재생, SOC 시설물의 유지보수/재개축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 2020년 이후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신축 시장이 쇠퇴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는 반면, 유지보수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는 2020년 이후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이 축소되고, 대신 주택 리모델링, 도심 재생,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고급/첨단화 관련 재개축과 유지보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SOC 시설 역시 스톱 축적, 공공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축 투자가 축소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재개축 투자 위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2020년에 약 11%가 되고, 2025년 이후에는 1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이 선진국형 시장으로 본격 전환될 것이라는 의미임.
  - 현재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은 대부분 평균 11%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 ■ 정부 정책과 건설기업 전략 전환 필요

- 따라서, 향후 정부는 도심 재생,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및 SOC 시설물의 질적 고도화 등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적 기반 및 재원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도심 재생, 주택 리모델링, SOC 시설물의 질적 고도화 등과 관련된 유지보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면, 2020년 이후 GDP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이 1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음.
- 건설기업은 신축 건설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 마케팅,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장 창출형 영업을 지향해야 함.
  - 선진 기업처럼 SOC 시설물의 운영, 유지보수를 포함한 위탁 관리,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의 임대 관리/자산 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함.

이홍일 (연구위원 · hilee@cerik.re.kr),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건설 전업 기업들의 과제

- 건설업에만 전념하는 지나친 보수적 전략보다 적절한 사업 다각화 검토가 바람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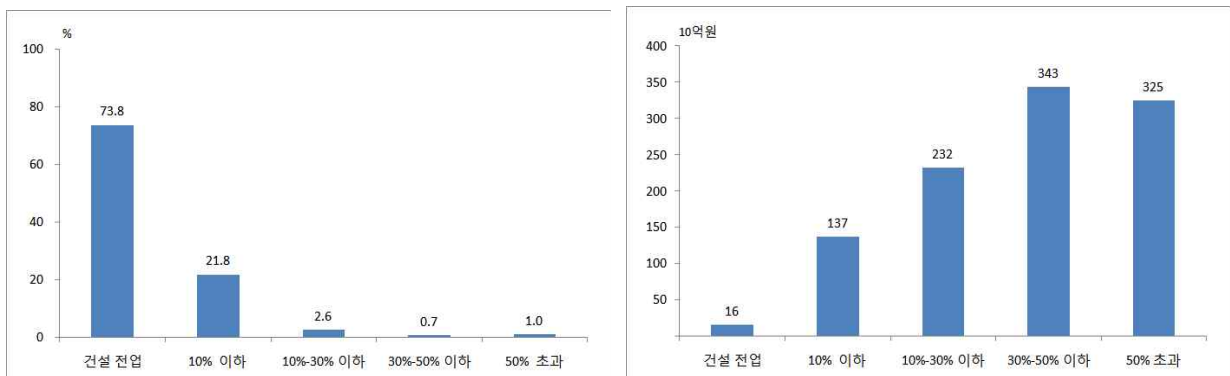
### ■ 특정 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

- 건설업에 전념하는 기업과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는 기업 간의 성과 비교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통상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토건업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업체들의 최근 3년 간 평균 겸업 비중을 기준으로 분석
  -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 의한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공사 실적 및 경영 지표 관련 주요 지표에 결측치가 있는 기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 ■ 건설 전업 기업이 전체 건설기업의 3/4, 상대적으로 영세하지만 안정적 경영

- 최근 3년 간의 건설 매출 비중이 100.0%인 건설업 전업 기업이 전체 건설기업의 73.8%
  - 건설업 이외 분야의 겸업 비중이 10%를 넘는 건설기업은 4.4%에 불과
  - 건설 전업 기업은 영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보임.

<건설업 겸업 비중별 업체 구성비 및 평균 건설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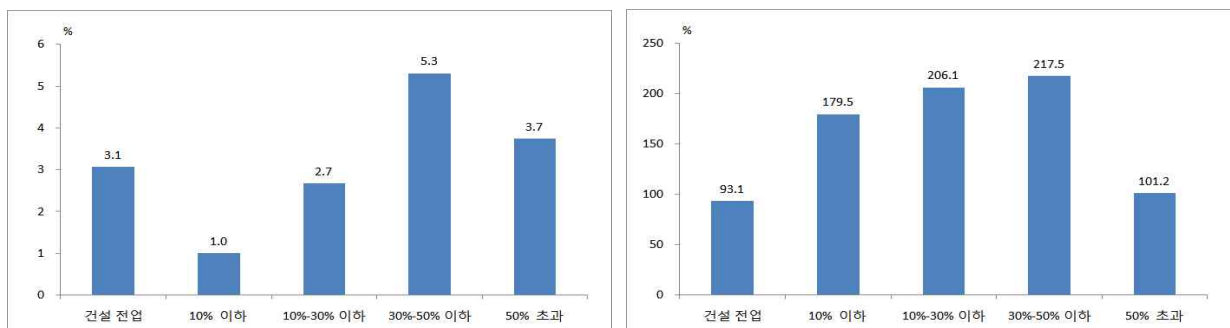


- 건설기업들의 2012년도 평균 건설 매출액은 530억원이나, 겸업 비중이 클수록 증가
  - 겸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건설 매출액이 증가해 건설 전업 기업은 평균 160억원으로 가장 작고, 겸업 비중이 30~50% 이하인 그룹은 20배가 넘는 평균 3,430억원으로 최고
  - 건설 전업 기업은 도급 사업에 치중하여 그 비중이 99.0%로 파악됨.

■ **겸업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률이 높지만, 안정성은 취약**

- 겸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이 상승하여 겸업 비중이 30~40% 이하인 그룹에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로 최고
  - 겸업 비중이 10% 이하인 기업의 수익률이 가장 낮으며, 전업 기업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을 보면, 건설 전업 기업이 93.1%로 가장 낮고, 겸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겸업 비중이 50% 이하인 그룹은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겸업 비중이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은 낮고 차입금의존도는 높아지는 등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 겸업 비중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부채비율>



■ **낮은 수익성과 과잉 공급이 지속되는 레드오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 필요**

- 건설 전업 기업은 도급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한정적으로 설정하여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영세 기업들이 주류
- 겸업 기업들은 인접 사업 분야에도 과감히 진출하는 고위험·고수익(High-Risk·High-Return) 전략을 구사하는 역동적인 기업들이 많고,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결과적으로 건설 전업 기업의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기는 곤란
- 건설업의 장기 침체로 과잉 공급 및 저수익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에만 주력하는 보수적 전략보다 인접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 영국의 건설산업 전략 2025<sup>1)</sup>

- 정부와 산업 간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으로 세계 건설산업 선도 의지 표명 -

### ■ 2025년을 향한 비전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는 지난 2013년 10월, 연구와 혁신, 디지털 설계(Digital Design), 첨단 자재와 신기술로의 변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건설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25년을 향한 비전(Our Vision for 2025)’을 발표
  -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통합(Integrated Supply Chains)을 통한 생산적 관계의 구축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탄소 시설 자산을 제공해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
- 건설리더십위원회(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를 주축으로 건설업계와 정부 사이에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함.
  - 2025년의 건설산업은 과거처럼 준공 지연, 비용 초과, 통상 마찰, 대금 지불 지연, 사고, 비우호적인 작업장 등 일반적인 사회적 변화의 수용에 더 이상 둔감한 산업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노력함.

### ■ 공동의 염원(Our Joint Ambition)

- 건설 초기 비용(The Initial Cost)과 자산의 전생애 비용(The Whole Life Cost)을 33% 절감
- 신규 건설과 개·보수 시설 자산에 대해 착수부터 완공까지의 전체 시간을 50% 단축
- 건설 공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50% 감축
- 전체 건설 제품과 자재에서 수입과 수출의 격차로 발생하는 불균형 무역 수지를 50% 감소

1) 본고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가 2013년 10월 23일에 발표한 “Construction Industrial Strategy 2025: Government and Industry in Partnership”의 내용을 요약 및 번역하였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struction-2025-strategy>



- 건설리더십위원회는 2025년까지 이러한 염원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작성

## ■ 공동의 책무(Our Joint Commitments)

-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설계에 있어서 영국의 경쟁 우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건축 의제(Digital Built Britain Agenda)를 마련함.
- 녹색건설위원회(Green Construction Board)가 주도하는 건설 공사시 이산화탄소의 배출 억제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 등 건설산업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함.
-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젊은 건설 인력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건설업계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켜 산업의 성과를 증진함.
- 미래 공사 기회에 대한 파이프라인(Pipeline : 수주 정보 루트)을 개발하고, 다수의 건설기업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함.
- 정부건설위원회(Government Construction Board)와 영국발주처그룹(IUK Client Group)의 주도로 구매 조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탐색함.
- 기업들의 재무 상태 및 지불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설 공급망의 확충을 위한 제반 여건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함.
- 건설업계 전반에서 연구 개발(R&D) 투자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학계 및 연구 단체와 함께 기술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본 전략의 개발에 긴밀히 참여하였던 HM Government(영국 정부), Strategic Forum (국무총리 산하 전략포럼),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과학기술위원회), CBI(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산업연맹), CECA(Communauté Européenne du Charbon et de l'Acierm, 유럽석탄철강공동체) 등은 공동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표명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7. 15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정책담당관실 주최, '정책성과평가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li> <li>- 상반기 자체 평가를 위한 부서별 실적 설명회</li> </ul>
7. 18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담당관실 주최, '외국인력 정책 발전 방안 TF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li> <li>-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의 내국인력 부족 동향 및 외국인력 도입 규모 등 논의</li> </ul>

■ 「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연구원은 지난 7. 18(금),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와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규태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간사가 제1주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및 공익 처분의 개요'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제2주제인 '기존 민자철도사업의 재정 지원 절감은 가능한가'는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3주제인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문제와 쟁점'은 김인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각각 발표하였음.
-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동완 SOC포럼 회장 등이 참여한 합동 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 질의, 토론자 간의 자유 응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일정 : 2014년 9월 23일(화)~25일(목)
- 장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대상 : 건설기업 SOC 민자 사업 담당자, 정부·정부투자기관·지자체 민자 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 설계·컨설팅 등 민자 사업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 관련 사업 담당자
- 비용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입찰 담합 근절, 제도적 요인부터 점검해야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현행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들이 각각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과징금과 더불어 부정당 업체 제재, 손해 배상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입찰 담합이 시장 내 건전한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국가 재정 낭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직·간접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거 동해고속도로 및 대전통영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국책 건설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처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공 건설시장은 국가 등이 유일한 발주자이자 직접 수요자로서, 수요 독점적 시장의 가격 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건설업체는 가격 순응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결국, 가격 순응자인 건설업체들은 가격 결정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담합의 동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입찰 담합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책임이 일차적으로 수요자, 즉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입찰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공사의 입찰에 적용되는 입찰제도에 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공사에 많이 적용되는 턴키입찰제도는 그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제한된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입찰 담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입찰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입찰 방식도 마찬가지로 가격만이 절대적인 평가 요소로 고려되거나, 기술력, 경영 상태 등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상황과 운찰제적인 요소는 결국, 가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예정가격제도에 있어서도 시장 가격과는 동떨어진 실적 공사비를 바탕으로 산정된 예정가격은 실질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높은 낙찰가격을 유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담합을 유인하게 된다.

입찰 담합과 같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다만,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사후의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실효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입찰 담합을 유발하는 정책, 제도적 요인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머니투데이, 2014. 6. 13>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